

8/18/19

설교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1:1-11

- (막 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막 1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 (막 11: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 (막 11: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 (막 11: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 (막 11: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 (막 11: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엮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절관주** 슥 9:9, 마 21:7
- (막 11: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절관주** 요 12:14
- (막 1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절관주** 시 118:26, 사 62:11
- (막 11: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절관주** 시 148:1
- (막 11: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바다 보이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막 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은 지형이 예루살렘 보다 높아 예루살렘 전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감람 나무(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겿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셔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매여있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과연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들이 이유를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막 11: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막 11: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막 11: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막 11: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막 11: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인데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가져 가려고 하는데 아무말도 않고 내줍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막 11: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엮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막 11: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막 1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11: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겹옷과 나뭇가지들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그토록 열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슌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BC 520 년에서 BC 470 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은 그후 약 500 년이 지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이 가는 십자가 길이 우연이 총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수백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2. 당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엉뚱한 생각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품고 죽으러 이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신 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정부를 엮어 버리고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등 종교 지도자들도 싹 쓸어버리고 백성들 편에서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은 엉뚱한 생각을 품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겔옷과 나뭇가지들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토록 열광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길에 겔옷과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당시 왕이 등극을 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설했을 때 이와같이 가는 길에 겔옷과 나뭇가지를 깔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길에 겔옷과 나뭇가지를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쳐 대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러 대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대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보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와 같이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세워지길 고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고 통치할 왕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같은 태도는 채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그 다음 돌아온 금요일이었습니다.

불과 5 일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과 싸우느라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씀도 상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속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차서 그 어떤 말을 해도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허무하게도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에 나타난 예수님을 본 무리들은 맥이 빠졌습니다.

“아니 이런 걸 메시아라고 따랐다니.....”

그들은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절망했고 실망했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해 줄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기대감을 품었다가 실망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이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로마 그리고 모든 민족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압제자나 압제를 당하는 자나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복 받고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각자 인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협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삶이 내 뜻대로 안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